

石像과 石物

Reference Book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Stone Statues and Stone Relics

濟州大學校博物館

石像과 石物

Reference Book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Stone Statues and Stone Relics

제주대학교박물관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발간사

우리 濟州大學校는 '眞理 正義 創造'를 建學理念으로, 그 동안 國家發展에 필요한 人才를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대학 博物館도 수많은 文化遺産의 遺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면 그 지역의 博物館을 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博物館은 그 지역의 文化水準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그 동안 蒐集, 發掘, 保存, 硏究하여 온 遺物 중에서 石製品만을 골라 『제주대학교박물관 圖錄Ⅲ ; 石像과 石物』이라는 이름으로 圖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濟州島의 先人들은 구멍이 숭숭한 火山岩을 가지고서도 藝術性이 뛰어난 石像과 日常生活에 필요한 石物을 創造하여 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遺物 속에서 先人들의 智慧를 얻고, 또 새로운 文化를 繼承하고 創造하는데 적극 활용하여야겠습니다.

우리 濟州大學校博物館은 올해로 40년을 맞습니다. 그 동안 우리대학교 博物館이 蒐集한 遺物資料는 수천 점에 이르고, 發掘하여 얻어진 유물은 수만 점이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대학교 박물관이 所藏하고 있는 遺物과 發掘資料를 전시하고 보관할 博物館 건립을 위하여 東奔西走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대학교 박물관의 持續的인 發展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이 책을 만들려고 不撤晝夜 일해 온 康東彦 館長과 編輯者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07년 2월

濟州大學校 總長　高 忠 錫

I am pleased and proud that we, Cheju National University have graduated many talented people for our country, and that we have collected a lot of cultural relics in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There is a saying that if you want to get some useful information about a region, you must visit its local museum without fail. This means that the local museum represents the cultural level of the region. For this reason,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has published its 3rd reference book, "Statues and Relics Made of Volcanic Rock" which contains the references about the best stone relics in our museum .

Our ancestors of Jeju Island created highly valued artistic works despite great difficulty with dealing with the volcanic rock. Through our ancestors' works, we must create new culture as well as learn their wisdom. Furthermore we must hand it down.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is 40 years old this year. It has collected thousands of cultural relics, and has performed countless excavations. I have been devoted to building a new museum to preserve all these cultural relics. I would greatly appreciate your assistance.

I do hope that this reference book will be helpful to you. I intend to further our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s will improvements. Lastly, I am thankful to Kang Dong-eon, President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and all the relevant editors.

February 2007

Ko, Choong-Suk President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石像과 石物

우리 박물관에는 전통적인 향토문화유산을 제법 所藏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돌들을 소재로 遺物을 골라 그 일부를 『圖錄』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圖錄』에서는 돌의 遺物을 크게 石像과 石物 두 갈래로 잡았습니다.

제주도의 火山岩은 石像으로 세밀하게 다듬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형물로 훌륭하게 탄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돌하르방입니다. 돌하르방은 화산암의 특징과 질감을 그대로 살려 만들었습니다. 한편 무덤 앞에 두는 童子石, 防邪塔에 올려놓았던 石像들 또한 돌을 다듬어 만들어졌습니다.

또 돌의 쓰임새는 무한하였습니다. 향로, 저울추 등을 비롯한 각종 도구나 부속품도 돌로 만들어 썼습니다. 어른들은 마을 어귀에 둔 '들음돌' 을 가지고 힘을 겨루었습니다. 별다른 장난감이 없던 어린이들도 돌멩이를 가지고 공깃돌, 고누 등을 하며 놀았습니다. 돌은 삶의 환경을 척박하게 한 주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은 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슬기롭게 살았습니다.

평소 박물관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圖錄』의 발간을 物心兩面으로 도와준 高忠錫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석상과 석물의 影像을 사진으로 담아준 김병국 선생, 편집을 도와준 朴聖珍 교수(제주대 미술학과), 그리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쇄를 맡아준 디자인회사 제주사람들 김성환 사장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7년 2월

제주대학교박물관장 康 東 彦

Statues and Tools Made of Volcanic Rock

We are very proud of our museum where we have collected a lot of traditional and local cultural assets. We are happy to publish a reference book of the valuable collections selected of stone relics.

The volcanic rock of Jeju Island was crafted into formative works despite its difficulty to manipulate. The Stone Grandfather,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and natural quality of volcanic rock, is a good example. The stone child statues in front of tombs, and stone statues on Bangah Towers are other good examples.

The volcanic rock of Jeju Island had a variety of uses for many kinds of tools and parts of tools such as incense burners and the weights for scales. It was also used to demonstrate the power and might of youth by using a big rock called Deuleumdol, located at the entrance of villages. In addition, the volcanic rock was used when children played jackstone or "gonu." On the other hand, stones also made life difficult for people of Jeju. However, they had the wisdom to overcome their difficulty and live wisely by using stone.

I am very grateful to Mr. Ko Chung-seok, President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for his great assistance. Mr. Kim Byeong-kuk made a photographic record of all the relics. Mr. Park Seong-jin, Professor of Art Department, was in charge of editing this record. Lastly, Mr. Kim Seong-hwan, President of "Jejusaramdeul Design Company", gave us a lot of assistance for the publication despite its difficulty. I appreciate their devotion and assistance.

February, 2007

Kang, Dong-Un President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CONTENTS 차례

02 발간사

04 도록 발간에 부쳐

08 일러두기

제1장 石像

10 돌하르방

14 동자석

64 조천석

65 돌코양이

제2장 石物

68 의 생 활 다듬잇돌
70 식 생 활 항뚜껑, 돌화리, ㄱ레, 풀ㄱ레, 돌방애, 돌확, 연자매, 보리통, 도구통, 소줏돌, 봉애기(기름틀)
93 주 생 활 주먹돌, 집터 다지는 돌, 주춧돌, 물팡돌, 봉덕, 등경돌
108 생산·생업 곰돌, 돌테, 닻돌, 앞댓돌과 에음댓돌, 주낙닻돌과 봉돌, 釣漁具, 덩드렁
116 교 역 저울추
120 신 앙 칠성돌, 상돌, 향로, 비석과 벙것

제3장 小論

128 濟州島 石像의 美學
140 濟州島 石物의 世界

일러두기

-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물 중 石製遺物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 石製遺物은 크게 石像과 石物로 나누었고, 각각 小論으로 다루었다.
- 石製遺物의 규격은 가로×세로×높이(㎝)를 기본으로 원형인 경우는 지름×높이(㎝), 원통인 경우는 윗지름×아랫지름×높이(㎝)로 통일하였다.
- 著作權法에 따라 無斷轉載를 금한다.

Explanatory Notes

- This book deals with the stone relics owned by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 The categories in this book are classified into stone statues, and Stone Relics with their individual subcategories.
- The sizes of the stone relics in this book are declared on the basis of "width×length×height"(cm) and "diameter×height"(cm) for round shapes, and "upper diameter×lower diameter×height"(cm) for cylindric shapes.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prior permission, according to the copyright.

제1장 石像

Chapter 1. Stone Statues





돌하르방 Dolhareubang
55×62×200㎝





돌하르방 Dolhareubang
53×53×235㎝





돌하르방 Dolhareubang
50×43×166㎝



돌하르방 Dolhareubang
55×42×162㎝



동자석 Dongjaseok 22×17×67㎝







동자석 Dongjaseok 22×17×71㎝



동자석 Dongjaseok 19×15×72㎝







동자석 Dongjaseok 20×18×65㎝



동자석 Dongjaseok 17×1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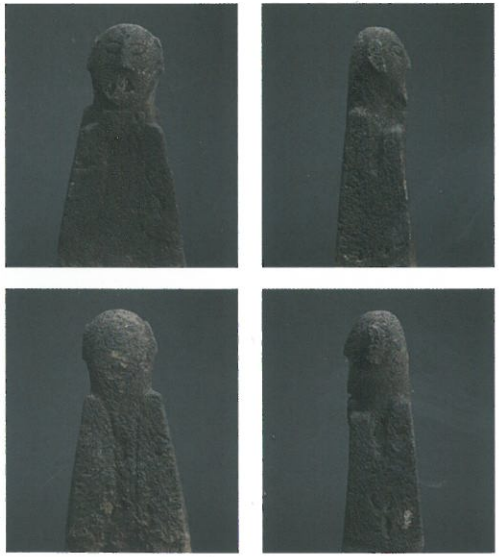


동자석 Dongjaseok 17.5×15×64㎝





동자석 Dongjaseok 19.5×16×64㎝





동자석 Dongjaseok 18×15×67㎝



동자석 Dongjaseok 17×16×69㎝







동자석 Dongjaseok 17.5×17×70.5㎝





동자석 Dongjaseok 15.5×18×58.5㎝





동자석 Dongjaseok 19×17×55.3㎝





동자석 Dongjaseok 22×13.5×73㎝





동자석 Dongjaseok 22×16×70.5㎝



동자석 Dongjaseok 22×20.5×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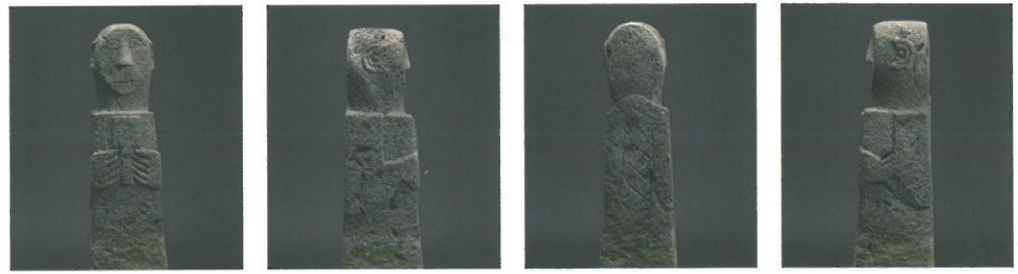




동자석 Dongjaseok 22×19×83㎝



동자석 Dongjaseok 17.5×18.5×83㎝







동자석 Dongjaseok 23×25×74㎝



동자석 Dongjaseok 18.5×14×69㎝





동자석 Dongjaseok 23×25.5×95㎝







동자석 Dongjaseok 21×21.5×78㎝



동자석 Dongjaseok 17.5×17×73㎝







동자석 Dongjaseok 18.5×19×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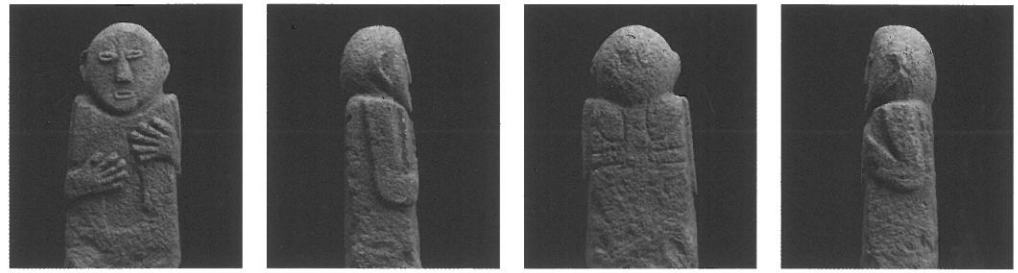




동자석 Dongjaseok 16×19×60㎝



동자석 Dongjaseok 20×15×62㎝





동자석 Dongjaseok 19×17×73㎝





동자석 Dongjaseok 17×16×59.5cm







동자석 Dongjaseok 16.5×16.5×56㎝



동자석 Dongjaseok 17×16.5×79.5㎝





동자석 Dongjaseok 16.5×1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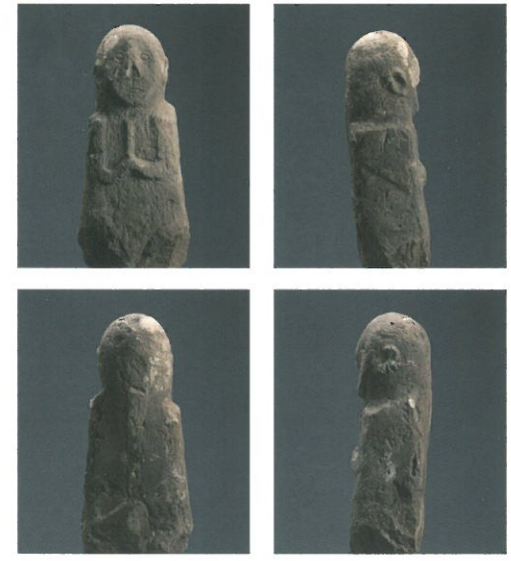


동자석 Dongjaseok 16.5×15×55㎝





동자석 Dongjaseok 15.5×12×47㎝







동자석 Dongjaseok 17.5×14×53.5㎝





동자석 Dongjaseok 20×16×67㎝



동자석 Dongjaseok 21×16×74㎝





조천석 Jocheonseok
30×28×97㎝



돌코양이 Dolkoyangi
30×38×80㎝

제2장 石物

Chapter 2. Stone Relics





다듬잇돌 Dadeumitdol 52×25×12㎝



다듬잇돌 Dadeumitdol 53×25.5×10.5㎝



다듬잇돌 Dadeumitdol 51.5×20×11㎝



다듬잇돌 Dadeumitdol 47×24×15㎝



다듬잇돌 Dadeumitdol 56×20×10㎝



항뚜껑 Hangdukkeong
40ø×11.6cm



항뚜껑 Hangdukkeong
21.2ø×7cm



항뚜껑 Hangdukkeong
30ø×11.5cm



항뚜껑 Hangdukkeong
29.3ø×11cm



항뚜껑 Hangdukkeong
29ø×8.4cm



항뚜껑 Hangdukkeong
28.4ø×9.3cm



돌화리 Dolhwari 46×28×16㎝



돌화리 Dolhwari 28.5×19×17.8㎝



돌화리 Dolhwari 45×30×23㎝



돌화리 Dolhwari 51×29×20㎝



돌화리 Dolhwari 37.5×22.5×18㎝



돌화리 Dolhwari 43×24×18.5㎝



돌화리 Dolhwari 34ø×23.5ø×17㎝



돌화리 Dolhwari 36ø×13㎝



돌화리 Dolhwari 35ø×25ø×18.5㎝



돌화리 Dolhwari 31ø×17.7cm



ᄀᆞ레 Gore 42ø×24.5㎝



ᄀᆞ레 Gore 41ø×22.9㎝



ᄀᆞ레 Gore 39.5ø×13.5㎝



그레 Gore 41ø×24.7㎝



풀그레 Pulgore 26ø×49ø×40㎝



풀ᄀᆞ레 Pulgore 24ø×40ø×30㎝



돌방애 Dolbangae 111ø×61㎝



돌방애 Dolbangae 88.5ø×47㎝



돌혹 Dolhok 36ø×29ø×16cm



돌혹 Dolhok 19.5ø×7ø×14.5cm



돌확 Dolhok 27ø×16ø×16cm



돌확 Dolhok 23.5ø×15.5ø×16.5cm



돌확 Dolhok 7.5ø×5.5ø×6.2cm



돌확 Dolhok 95ø×9.3ø×6.8cm



연자매 Yeonjamae 198ø×66.5㎝



보리통 Boritong 69ø×44㎝



보리통 Boritong 79.5ø×40㎝



보리통 Boritong 82.5ø×40㎝



도구통 Dogutong 46ø×45㎝



도구통 Dogutong 32ø×35㎝



도구통 Dogutong 56.5ø×40㎝



도구통 Dogutong 69.5ø×66㎝



도구통 Dogutong 65ø×48㎝



소줏돌 Sojutdol 36ø×8.3cm



소줏돌 Sojutdol 34ø×9.5cm



소줏돌 Sojutdol 40ø×6cm



소줏돌 Sojutdol 37ø×7cm



소줏돌 Sojutdol 34.5ø×7㎝



소줏돌 Sojutdol 36.5ø×3.5㎝



봉애기(기름틀) Bungaegi 61×45×10㎝



주먹돌 Jumeokdol
55×15×137㎝



주먹돌 Jumeokdol 34×14×80㎝



주먹돌 Jumeokdol 45×11×87㎝



주먹돌 Jumeokdol 40×19×104㎝



주먹돌 Jumeokdol 50×20×132㎝



주먹돌 Jumeokdol
34.5×9×92㎝



주먹돌 Jumeokdol 50×20×132㎝



주먹돌 Jumeokdol 43×16×88㎝



주먹돌 Jumeokdol 41×9×102㎝



주먹돌 Jumeokdol 51×41×99㎝



주먹돌 Jumeokdol 24×72×92㎝



주먹돌 Jumeokdol 38×20×92㎝



주먹돌 Jumeokdol 33×53×88㎝



집터 다지는 돌 Ground-Pounding Stone 24×21.5×50㎝



주춧돌 Juchutdol 38×45×58㎝



주춧돌 Juchutdol 45ø×34.5㎝



물팡돌 Mulpangdol 61×40×57㎝



봉덕 Bongdeok 72×62.5×21.5㎝



봉덕 Bongdeok 68.5×69×29㎝



등경돌 Deunggyeongdol 16.3ø×49㎝



등경돌 Deunggyeongdol 17.5ø×15×43㎝



등경돌 Deunggyeongdol 23ø×41.7㎝



등경돌 Deunggyeongdol 23.7×19.5×43㎝



등경돌 Deunggyeongdol 16ø×30.5㎝



등경돌 Deunggyeongdol 19ø×22×42.2㎝



등경돌 Deunggyeongdol 23×14×34㎝



등경돌 Deunggyeongdol 17ø×10.5ø×12.5㎝



등경돌 Deunggyeongdol
26.5×19×36.2cm



곰돌 Gomdol
26×11×51.2㎝



돌테 Dolte 54×23.5×21㎝



돌테 Dolte 58×18×18㎝



닻돌 Datdol 33.6×27×12㎝



닻돌 Datdol 31×37×13.5㎝



망어구 앞댓돌 Apdaetdol 15×32×11㎝



망어구 에움댓돌 Eeumdaetdol 54㎝, 9.5×10×8.5㎝



주낙닻과 봉돌 Junakdat and Bongdol 67.5㎝, 10×18.5×4.5㎝



주낙닻돌 Junakdatdol 61㎝, 9×18×7.5㎝, 10×17.5×8㎝



釣漁具 Joeogu 10.5×7.3×4.8㎝



덩드렁 Deongdeureong 34.5ø×22.5㎝



저울추 Jeoulchu 22.5㎝, 4.5×5.5㎝



저울추 Jeoulchu 9.5×10㎝



저울추 Jeoulchu 7×15㎝



저울추 Jeoulchu 25.1㎝,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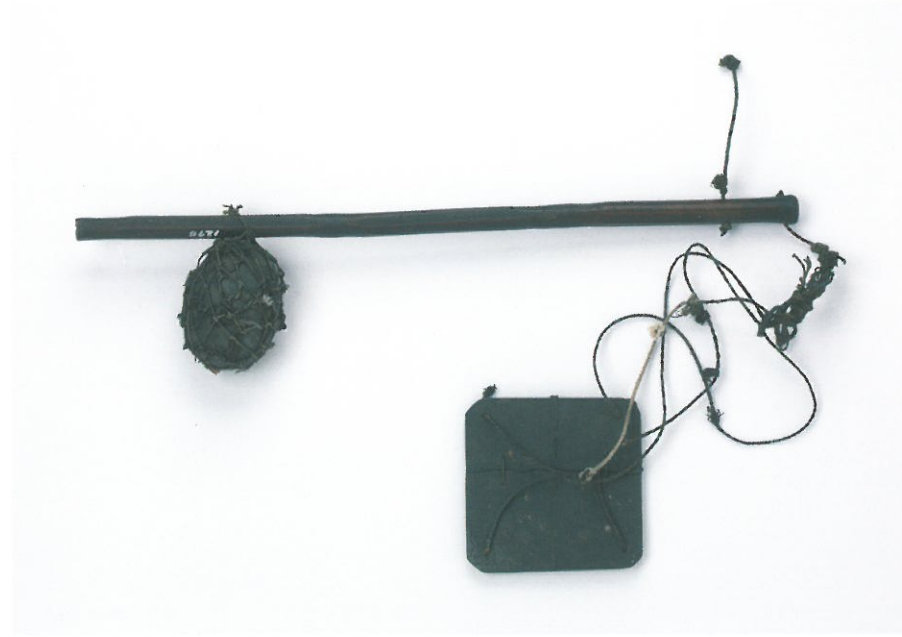
저울추 Jeoulchu 29.8㎝, 4.8×7.3㎝



저울추 Jeoulchu 4×5.5㎝



저울추 Jeoulchu 56㎝, 8×10㎝



저울추 Jeoulchu 52㎝, 7.2×10.4㎝, 12.1×12.6㎝



칠성돌 Chilseongdol 27×26×35.5㎝



칠성돌 Chilseongdol 35.6×29×27.5㎝



칠성돌 Chilseongdol 24×24×37㎝



상돌 Sangdol 10×6.6×6㎝



상돌 Sangdol 11×8×9㎝



상돌 Sangdol 9.5×7×7.8㎝



상돌 Sangdol 15×11×9㎝



향로 Hyangno 11.5×7.5×8㎝



상돌 Sangdol 9.4×6.7×6.85㎝



비석 Biseok 55×40×115㎝



비석 Biseok 27×22×57㎝



비석 벙것 Biseok Beonggeot 88×65×43㎝



비석 벙것 Biseok Beonggeot 92.5×67×40㎝

제3장 小論

Chapter 3. Essays

濟州島 石像의 美學

康 東 彦(제주대학교박물관장)

1. 머리말

濟州島는 火山岩과 火山土로 이루어진 섬이다. 漢拏山(표고 1,950m)에서 화산이 불출할 때 흘러내린 마그마가 냉각되어 화산암과 화산토를 만들어 냈다. 제주도의 화산암은 구멍이 숭숭하여 石像으로 세밀하게 다듬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돌하르방이다. 한편 무덤 앞에 두는 동자석, 그리고 防邪塔의 石像들도 돌을 다듬어 만들었다.

濟州島의 石像은 火山岩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 만들었으니, 韓半島의 花崗岩이나 오키나와의 石灰岩의 彫刻과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濟州島 石像이 갖는 특징이다.

2. 돌하르방

돌하르방은 제주도 행정구역이 3분하였던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濟州牧, 旌義縣, 大靜縣 세 도읍지의 성문 앞에 세워졌다. 돌하르방은 濟州牧의 것이 23기, 旌義縣의 것이 12기, 大靜縣의 것이 12기로 모두 47기이다. 이들 세 지역의 돌하르방은 형태와 크기가 서로 달랐다. 濟州牧의 돌하르방은 가장 커서 평균 181.6cm, 旌義縣의 돌하르방은 141.4cm, 그리고 大靜縣의 돌하르방은 136.2cm이었다.

돌하르방은 오늘날 국내외에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민속자료다. '돌하르방'이라는 말은 근래에 생겼다. 원래 이름은 '우석목', '무석목', '벅수머리' 등이었다. 翁仲石이라고도 했다지만 민간에서 쓰인 바는 드러나지 않는다. 아무튼 세 도읍지 성문 앞에 쌍쌍이 세워졌던 돌하르방은 그 크기와 자태가 서로 달랐다.

1)濟州牧의 돌하르방(사진1)

濟州牧의 돌하르방은, 玄容駿에 의하여 「濟州石像 우석목(돌하르방)考」(『제주도 제8호』, 1963) 가 발표되면서 최초로 學界에 소개되었다. 玄容駿은 濟州牧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의 원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다.

제주성이 있을 때 동문이 있던 자리로부터 바깥으로는 길이 S자형으로 꼬불꼬불 꿇려 나갔는데, 성문에서 약 35m 나아가면 길을 한 번 굽이도는데, 그 굽이 길 좌 · 우에 2좌씩 4좌가 마주 세워져 있고, 다시 50m정도 나아가면 길은 다시 굽이돌고, 그 굽이 길에 또 좌 · 우에 2좌씩 4좌가 마주 세워져 있었다.[1)]

濟州牧 성 앞의 石像에는 基石이 있고, 그 기석 한쪽에는 ㅇ형 구멍이 있고 한쪽 기석에는 'ㄱ' 자를 거꾸로 한 형상의 홈이 있는 것이 특성이다. 이는 마치 '정낭'을 걸치듯 ㅇ형의 구멍 속에 긴 나무 한끝을 꿰고, 다른 한끝을 'ㄱ' 자를 거꾸로 한 홈에 찔러 넣으면 긴 '정낭' 같은 나무가 고정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무를 꿰어 놓으면 성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성문이 닫혀 통행금지라는 것을 알고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나무를 빼어놓아 있으면 들어와도 좋다는, 마치 '정낭'과 같은 기능을 했을 것이다.[2)]

濟州牧 돌하르방의 姿態는 굳게 다문 입과, 양 어깨가 뒤로 처져 금방이라도 주먹이 튀어나올 듯 한 자세를 취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벙거지를 약간 비스듬하게 쓰고 얼굴을 쑥 내밀어 무엇을 노려보는 인상을 풍기는 돌하르방으로 基石에 얹어있는 자세가 매우 안정되어있고 조형감각이 우수한 돌하르방이라 하겠다.



사진 1 제주목의 돌하르방, 1950년대, 홍정표사진



사진 2 정의현의 돌하르방
1950년대, 홍정표사진

1) 玄容駿(2002), 『濟州石像 우석목(돌하르방) 考』『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集文堂,, 250-265쪽.
2) 玄容駿(2004), 『민속사진집 靈』, 도서출판 각, 192쪽.



사진 3 대정현의 돌하르방,
1950년대, 홍정표사진



사진 4 동자석만 있는 무덤,
안덕면 상천리, 2003. 1. 18, 고광민사진

2)旌義縣 돌하르방(사진2)

旌義縣 소재지는 지금의 表善面 城邑里이다. 돌하르방은 旌義縣의 동 · 서 · 남문 앞에 각각 4좌씩 마주 세워져있었다. 濟州牧의 것과 달리 홈이 없는 基石이다. 무슨 때문에 基石에 홈이 없는지 알 수가 없다.

돌하르방의 크기는 濟州牧의 것보다는 작다. 그 얼굴은 몸 전체의 $\frac{1}{3}$을 차지하고 있으며 顔面에 코를 과감하게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다. 旌義縣의 돌하르방은 벙거지 표현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였고, 눈이 움푹 패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인상을 풍기고 위엄성 있게 보인다. 돌하르방의 손은 어린이 손 같이 작게 보이는 것이 旌義縣에 있는 돌하르방 12기의 공통된 표현양식이며, 매우 소박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3)大靜縣의 돌하르방(사진3)

大靜縣의 소재지는 지금의 大靜邑 仁城里, 安城里, 保城里이다. 돌하르방은 동 · 서 · 남문 앞에 4좌씩 마주 세워져 있었다. 大靜縣의 돌하르방은 基石이 없이 몸통만 세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大靜縣의 돌하르방은 四角이 진 돌에 조각을 했는지 몸 전체는 각을 그대로 살려 어깨와 손을 조각하였다. 돌하르방의 둥근 얼굴과 각진 몸통의 조화를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뒷목부터 턱을 따라 목도리를 두른 듯 陽刻하였다. 특히, 눈을 이중으로 양각해서 표현한 것이 특징인데, 두 눈만 유별히 튀어나온 표현은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주시하고 있는 守護者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무표정한 얼굴이지만 입모양은 방긋 웃는 표정을 짓고 있으며 매우 해학적인 조형미를 갖춘 돌하르방이라 할 것이다.

돌하르방의 기능은 수호신의 기능, 주술종교의 기능, 그리고 위치 표지 및 금표의 기능 세세가지로 압축된다.

돌하르방은 濟州三邑의 도읍지 입구에 쌍쌍이 마주하여 서 있음으로써 도읍지 내는 물론이요, 주민들의 평안과 융성을 지켜주며 기원하는 수호신의 기능을 지닌다고 입을 모은다. 문지기 노릇을 한다든가 무덤 앞에 세워진 동자석 기능을 한다던가 하는 말들을 주민들이 강조한다. 이는 곧 수호신의 기능으로 요약된다.

둘째의 주술종교의 기능은 防邪塔의 기능 또는 축사의 기능을 지님으로써 난리의 피해, 악질의 침범, 잉

태의 기능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셋째의 위치 표지 및 금표의 기능은, 돌하르방이 도읍지의 성문 앞에 세워짐으로써 도읍지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줌과 동시에 성 바깥사람들이 성안으로 함부로 들어오는 일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듯 돌하르방은 단순과 강조가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돌하르방은 외형상의 장식을 거부하고 내면적인 삶을 추구하며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제주인의 소박한 미의식의 표출이라 하겠다.



사진 5 인석(人石)만 있는 무덤,
표선면 성읍2리, 2003. 3. 19, 고광민사진

3. 동자석과 인석

제주에서 돌을 빼놓고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제주사람과 제주 돌담은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죽어서도 산 담으로 보호를 받는다. 제주도 무덤의 특색은 돌담으로 네모나게 쌓은 '산담'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金聲久의 『南遷錄』은 "무덤이 밭 속에 많다. 또 사면을 돌로 둘렀다. 소와 말이 들어가서 밟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墳塚多在田中 而亦皆四面石築 所以禦牛馬闌入蹴踏之患也)."고 하였다. 이처럼 제주도 무덤의 돌담은 방목문화가 낳은 것이다. 돌담을 쌓다가 남자의 무덤 왼쪽 여자의 무덤은 오른쪽에 길을 낸다. 이를 시문이라 이른다. 무덤의 봉분 속 주인공의 출입문이다. 封墳 앞 祭壇 주변에 童子石, 人石, 望柱石 등을 세운다. 童子石과 人石은 그 기능이 다소 달랐다.

童子石은 귀밑머리를 하고 있지만 인석은 귀밑머리를 풀고 땋아 올리고 머리에 宕巾을 쓰거나 벙거지를 쓴 모양을 하고 있다. 벙거지를 쓰고 있는 모습은 돌하르방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무덤에 석상 세우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安德面 上川里 속칭 '용술작지' 라고 하는 지경에 있는 유인 김씨 무덤에는 한 쌍의 동자석이 서로 마주 보고 서있다(사진4). 그리고 表善面 城邑里 속칭 '윤남동산' 지경에는 宋公의 무덤에는 宕巾을 쓰고 있는 한 쌍의 人石이 서로 마주보며 서 있다(사진5). 그리고 大靜邑 上摹里 松岳山 앞 골에 있는 한 무덤에는 벙거지를 쓴 人石과 童子石이 서로 마주보며 서있다(사진6).



사진 6 인석과 동자석,
대정읍 상모리, 2000. 3, 고광민사진

人石의 머리모양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濟州牧과 旌義縣 지역의 人石은 宕巾을 쓰고 있는 수가



사진 7 코가 잘린 동자석,
제주돌공원, 2003. 7. 23, 고광민사진

많고, 大靜縣 지역의 人石은 벙거지를 쓰고 있는 수가 많다. 인석은 무덤이 위치한 곳에 풍수지리상 사학한 기운을 막기 위에 세운 석상이라 할 수 있다.

童子石은 세 개의 석상 중 그 규모가 가장 작다. 말 그대로 童子의 모습이다. 童子石은 처녀와 총각의 징표이기도한 귀 뒤로 넘겨 땋은 귀밑머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손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들고 있다. 童子石은 亡者의 심부름꾼이며 영혼의 벗이다. 무덤의 봉분 앞에 세워진 童子石은 무덤의 주인공인 亡者와 童子가 어우러져, 亡者의 영혼을 0위로하는 제주인의 애틋한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망자의 무덤 앞에 세우는 동자석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평화로움이다. 동자석은 제주인의 조상에 대한 효심의 배례가 조형적 차원으로 승화한 것이다.

제주의 동자석은 현무암 재질을 살려 조각하였다. 大理石이나 花崗岩으로 만든 石像에서는 세련된 기교와 곡선으로 조각할 수 있으나 濟州島의 石像에서는 대상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石像의 표정을 굵은 선으로 처리하여 玄武岩의 질감을 살려내어 순진하고 해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사진 8 음(陰)을 상징하는 생이탑,
조천읍 신흥리, 1997. 7. 20, 고광민사진

4. 石像과 朝天石

제주대학교박물관에는 '돌코냉이' 라는 石像과 朝天石이라고 새겨진 人石이 있다.

朝天石은 지금의 제주시 산지천 하류에 바다를 향하여 세워져있었다. 바닷물은 산지천을 역류하며 올라와 논으로 흘러들었고 논농사를 망치게 되었다.

朝鮮王朝 中宗15(1520)년 8월 21일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10월 17일 왕명 따라 사사한 金淨(1486~1521)은 이런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산지천 하류에 바닷물의 측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옆에 바닷물의 역류를 막으려고 바로 이 朝天石을 세웠다고 한다. 그 후 바닷물이 논에 들어오는 일은 없어졌으니 논농사가 풍성하여졌다고 전하는 걸로 봐서 朝天石은 액운을 막는 기능을 하였다고 본다.

'돌코냉이' 는 돌로 만든 고양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원래 涯月邑 新嚴里 防邪塔 위에 세워져있었던 것이다. 마을에서 惡靈이 오는 길목에 탑을 세워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속칭 '거욱대', '거욱', '거왁' 이라고 하였다.

마을에 불길한 징조가 있거나 풍수지리설에 따라 허하다고 믿는 곳에 액운을 막으려고 세운 것이 防邪塔이다. 防邪塔은 마을의 안녕과 수호, 역병, 화재, 해상의 안전예방 등 마을의 재난을 막아 달라는 탑을 세웠고, 그 위에 돌하르방의 석상이나 새 모양의 형상, 그리고 비자나무와 참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무로 '거욱'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朝天邑 新興里 防邪塔은, 이 마을 포구 가까운 곳에 있는 '큰개여', 그리고 그 곳에서 북서쪽으로 뚝 떨어진 '오다리코지'에 두 개의 탑이 세워져 있다. '큰개여'에 있는 탑을 '큰개탑' 또는 '생이탑'이라고 이른다. 탑의 머리는 50㎝ 정도 패여 있다. 陰을 상징한다. '오다리코지'에 있는 탑을 '오다리탑'이라고 이른다. 탑의 머리에는 50㎝ 길이의 뾰족한 돌멩이가 세워져 있다. 陽을 상징한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며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涯月邑 新嚴里에는 '돌코냉이'라는 동물상을 만들어 좌우에 세워 마을에 액운을 막고 마을의 풍유와 안녕을 지극 정성으로 기원했다.

제주도의 防邪塔은 제주의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과 마을의 안녕과 풍유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세워졌다. 마을마다 防邪塔과 石像을 설치하여 신성시하였으며 돌탑 위에 석상도 제주 사람의 공동체적인 정서를 조화 있게 나타내고 소박한 수호신앙을 만들어 낸 것이다.



사진 9 대정읍 인성리의 거욱,
1960년대, 홍정표 사진



사진 10 귀동산,
표선읍 성읍2리, 2003. 3. 19, 고광민 사진

參考文獻

『南遷錄』(金聲九)

『耽羅誌』(淡水契 · 南萬里)

姜彰彦(1998), 『歷史遺蹟』『北濟州郡의 文化遺蹟(Ⅰ) -先史 · 歷史-』, 北濟州郡 · 濟州大學校博物館.

玄容駿(2002), 『濟州石像 우석목(돌하르방) 考』『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集文堂.

玄容駿(2004), 『민속사진집 靈』, 도서출판 각.

高光敏(2006), 『돌의 민속지』, 도서출판 각.

이윤형 · 고광민(2006),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Aesthetics of Jeju Island's Stone Statues

Kang, Dong-Un(President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1. Preface

Jeju Island is composed of volcanic rock and soil. The magma created from the volcanic eruption was cooled into volcanic rock which became has become soil. The volcanic rock has a lot of holes, which make it very difficult to craft stone statues. Despite its difficulty, the volcanic rock was carved into sculptures such as stone grandfathers, and stone child statues in front of tombs. The stone statues on *Bangah* Towers are another example.

Made of volcanic rock in Jeju, the stone statues of Jeju Island are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the sculptural art of Okinawa, Japan.

2. Stone Grandfather(Dolhareubang)

The Stone Grandfather statues stood in front of the gates of the castles of the 3 administrative districts during the Yi Dynasty. At that time Jeju Island used to have 3 administrative districts: Jeju-mok, Jeongeui-hyeon, and Daejeong-hyeon. Jeju Island has 47 Stone Grandfathers; 23 statues at Jeju-mok, 12 statues at Jeongeui-hyeon, and 12 statues at Daejeong-hyeon. Each of the statues has its own shape and size, according to the regions. The statues (181.6cm in height) of Jeju-mok are the tallest, compared to those at Jeongeui-hyeon (141.4cm) and Daejeong-eup (136.2cm).

The Stone Grandfather symbolizes Jeju Island the world over. The term *Dolhareubang* for Stone Grandfather has recently appeared. It is known that they were called *Wuseokmok*, Museokmok and *Beoksumeori*. *Ongjungseok*, though not widely used, was another name for the Stone Grandfathers. The twin statues standing at the gates of the 3 castle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size and shape.

1) The Stone Grandfather of Jeju-mok (Photo 1)

The Stone Grandfather of Jeju-mok was introduced to the academic circle through the essay of 「A Study on Wuseokmok (Stone Grandfather)」by Hyeon Yong-jun (『Jejudo No.8』, 1963). According to him, the original appearance was inferred as follows;

Outside from the east gate of Jeju Castle zigzagged a long road. Thirty-five meters outside from the road was a corner at which stood 4 statutes of Stone Grandfathers on both sides. Fifty meters away from the corner stood another 4 statutes face to face. [1]

The stone statues at the gate of Jeju-mok castle were supported by footing stones with a hole on one side and a groove on the other. They looked similar to *Jeongnang* hooked in the holes with the shape of a circle and in the groove with the shape of an upside-down '¬'.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 hooked bars functioned like *Jeongnang* which was used as a sign of "No Throughfare" and otherwise as a sign of "Allowed to Enter." [2]

The statures of Jeju-mok are characterized by their appearance. They stood with their lips firmly closed and both shoulders back. The Stone Grandfathers on footing stones give us a good impression, looking very stable.



Photo 1 Statue of Stone Grandfather in Jeju-mok
Photo taken by Hong Jeong-pyo in the 1950s

2) the Stone Grandfather of Jeongeui-hyeon (Photo 2)

Jeongeui-hyeon was located at Seongeup-ri, Pyoseon-myeon. At the gates of the east and the west stood 4 statues of stone grandfather opposite to each other. Unlike the statues of Jeju-mok, the footing stone had no grooves on them. Nobody knows why.

In terms of height, the statues of Jeongeui-hyeon are smaller than those of Jeju-mok. A third of the whole body is covered with the face which had a big nose. They have deep-set



Photo 2
Statue of Stone Grandfather in Jeongeui-hyeon
Photo taken by Hong Jeong-pyo in the 1950s

1) Hyeon Yong-jun(2002), 「A Study on Jeju Wuseokmok (Stone Grandfather)」『Jeju Island's Shamanism and its incantation』, pp. 250-265. Published by Jipmundang.

2) Hyeon Yong-jun)(2004), 『Photo Album of Spirits』, P. 192., published by Book Publishing Company.



Photo 3
Statue of Stone Grandfather in Daejeong-hyeon
Photo taken by Hong Jeong-pyo in the 1950s



Photo 4
Tomb Protected by Child Stone Statue Only
Sangcheon-ri, Andeok-myeon, Photo taken by Ko, Kwang-Min on January 18, 2003,

eyes, wearing neatly-crafted hats. They look dignified. The 12 statutes of Jeongeui-hyeon are all characterized by small hands and simplicity of style.

3) The Stone Grandfather of Daejeong-hyeon (Photo 3)

Daejeong-hyeon was located at Inseong-ri, Anseong-ri and Boseong-ri, Daejeong-eup. At the gates of the east and the west stood. 4 Stone Grandfathers opposite to each other. They stood without being supported by footing stones.

The statues of Daejeong-hyeon seem to have been sculptured by using square stone, for the whole body had their cornered shapes with their shoulders and hands in good harmony with the body. The back of the neck along its jaw was engraved as if it were wearing a scarf. Its eyes were engraved twice?. The statues with their prominent eyes look like guards protecting the castle. Despite its indifferent appearance, the statue has a big smile of formative beauty.

It was believed that *Dolhareubang* can protect their community as well as the castle, bringing prosperity and peace to the inhabitants. It was also thought that they could act as guides at the gate, or as a child statue to protect tombs. So it can be summarized that the *Dolhareubang* played a role as a guard.

Secondly, it was believed that Dolhareubang played a role as a tower preventing evils, as well as prayed for good luck for the community.

Thirdly, the Dolhareubang had functioned as landmarks, or a warning sign to not enter the castle, standing at the gates of the castle. Therefore the statues played a role in telling people about the seat of the Government, and in restricting people from their free pass through the gate.

Dolhareubang was in harmony with its surroundings by expressing Jeju people's simplicity. It seems to pursue its internal life without external decoration. Therefore it can be safely said that the *Dolhareubang* symbolizes Jeju people's simple sense of beauty and harmony with nature.

3. The Stone Statues of Children and Adults

You cannot talk about the history and culture of Jeju without mentioning stone. Jeju people

are on special terms with stone. "Jeju people are protected by a fence piled of stone even after death", so goes an old saying. The stone fences of the tombs on Jeju Island have four-cornered shapes. Kim Seong-gu's essay said that there are many tombs in farming land and that the tombs are surrounded by stone fences, so that the tombs can be protected from cattle. This means that the stone fences of the tombs on Jeju Island were created to protect the tombs from cattle. There used to be a passage between husband's tombs on the left and his wife's one on the right. The passage was called *Simun*(gate) which played a role as gate for the dead buried in the tombs. There stood stone statues of children and adults, as well as a stone tower called *Mangjuseok*. Each had its own role.

Some of the stone statues of children stood with long hair beneath the ears, while the adult ones had a stone hood on the head, wearing braided and raised hair. The others wear a felt hat which looks like the hat on Dolhareubang.

There were various styles in erecting stone statues at tombs.

A couple of stone child statues face a female tomb (photo 4), located at Sangcheon-ri, Andeok-myeon. Another pair wearing stone hoods stood face to face at Mr. Song's tomb, located at Seongeup-ri, Pyoseon-myeon (Photo 5). An adult stone statue wearing a felt hat , and a child stone statue stood facing a tomb in front of Mt. Songak located in Sangmo-ri, Daejeong-eup (Photo 6).

The adult stone statues have heads of different shape according to the regions where they were erected. It is usual that the statues in Jeju-mok and Jeoneui-hyeon wear a stone hood while the ones in Daejeong-eup wear a felt hat. It is believed that the adult stone statues were erected to protect from evils, based on its geomancy in relation to the tombs.

The child stone statue is the smallest of all the 3 stone statues. It looks like a child with its braided hair backward, as a symbol of a single boy and an unmarried girl. It holds various things, which means that the child statues play a role as the dead soul's friend as well as a servant. It can be said that the statues that stand in front of tombs represent Jeju people's sorrow. This is related to Jeju people's communication with their ancestors.

The child statues standing in front of tombs create a peaceful atmosphere by connecting this mundane world and the heavens. It can be said that the statues were sublimated into formative



Photo 5
Tomb Protected by Adult Stone Statue Only
Seongeup 2-ri, Pyoseon-myeon, Photo taken by Ko, Kwang-Min on March 19, 2003



Photo 6
Adult and Child Stone Statues
Sangmo-ri, Daejeong-eup, Photo Taken by Ko Kwang-min on March, 2000.



Photo 7
Child Stone Statue with Nose Broken Off
Jeju Stone Park, Photo Taken by Ko Kwang-min on July 23, 2003



Photo 8
Saengi Tower Symbolizing Female,
Shinheung-ri Jocheon-eup, Photo Taken by Ko Kwang-min on July 20, 1997

sculptures by Jeju people's filial piety to ancestors. Jeju's child stone statues were sculptured by using basalt (volcanic rock). On the statues made of marble or granite, elegant and curved lines can be sculptured. As for the stone statues made of basalt, innocent and humorous beauty can be expressed by using bold deletion and thick lines.

4. Stone Statues and Jocheonseok, Adult Stone Statue

Cheju National University has a stone statue named *Dolkonaengi* and an adult stone statue named *Jocheonseok*, which used to stand downstream of Sanji River toward the ocean. In the past, rice farming was destroyed by backward currents.

Kim Jeong (1486~1521) was exiled to Jeju Island on August 21, 1520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and was executed on October 17, 1521 according to the king's order. It is said that during his exile, he erected *Jocheonseok* with some equipment to measure the level of water and prevent backward currents. After that, there was no backward current. Therefore, *Jocheonseok* is regarded as a protector of misfortune.

Dolkonaengi, a stone cat, was originally erected on the *Bangah* Tower located in Sineom-ri, Aewol-eup. It was erected at the entrance of the village to stop evils from haunting their community. It was commonly called *Geowukdae*, *Geowuk* or *Geowak*.

Bangah Towers were erected to prevent misfortune at the time of a sign of misfortune or at the places regarded as evil according to geomancy. It was believed that *Bangah* Towers had the power to bring prosperity to their community, preventing some disasters such as illness, fire, and accidents in the ocean. It often happened that something like *Dolhareubang* or a bird made of stone was placed on the towers. Sometimes *Geowuk* made of hard wood from oaks or nutmegs was placed on the towers.

There is a *Bangah* Tower at Keungaeo near the harbor, located in Sinheung-ri, Jocheon-eup. Another *Bangah* Tower stands at Odarikoji a little distance away north west from it. The first one is called *Keungae* Tower or *Saengil* Tower. The head of the tower has a 50cm-deep groove symbolizing 'Female Principle in Nature'. The latter is called Odari Tower which has a 50cm long pointed stone on the head, symbolizing "the Male Principle in Nature". Both towers

protect the village with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Male and Female Principles in Nature."

The inhabitants of Sineom-ri, Aewol-eup built animal stone statues called *Dolkonaeingi* to protect their community from evils and bring about prosperity.

Jeju people erected *Bangah* Towers to protect themselves in the barren land and at the same time bring about prosperity and safety for their communities. They held them sacred. They also tried to express their emotions and simplicity of their community by using the stone statues on the stone tower.



Photo 9
Inseong-ri, Daejeong-eup in Geouk, Photo taken by Hong Jeong-pyo in the 1960s



Photo 10 Gwidongsan,
Seongeup 2-ri, Pyoseon-myeon, Photo taken by Ko, Kwang-Min on March 19, 2003

References

『Southern Culture』, Kim Seong-gu

『History of Tamra』, Yeom Su-gae, Nam Man-ri

Kang Chang-eun(2004),『Historical Relics』『Cultural Relics of Bukjeju County (I) - Prehistory · History』, Bukjeju County,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Hyeon Yong-jun(2002), 『A Study on Jeju Wuseokmok (Stone Grandfather)』『Jeju Island's Shamanism and its incantations』, Published by Jipmundang.

Hyeon Yong-jun, (2004), 『Photo Album of Spirits』, published by Book Publishing Company.

Folklore of Stone, Ko Kwang-min (2006), published by Book Publishing Company?

『Jeju's Stone Culture』, Yi Yun- hyeong & Ko Kwang-min (2006), Jeju Stone Culture Park

濟州島 石物의 世界

高 光 敏(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1 濟州島는 화산섬이다. 전체적인 형세는 漢拏山 자락이 바다까지 이어지는 도중에 오름과 들판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지세는 白鹿潭에서 분출된 용암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형성된 것이다. 한라산에서 분출된 용암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면서 식는 대로 굳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바위나 돌은 모두 玄武岩이다.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은 火山土이다. 지천으로 널린 玄武岩과 그 위를 덮은 火山土는 제주도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주도 어디에나 돌이 널려 있다. 경작지, 길, 주택가 어디든지 땅에는 온통 돌멩이가 깔려 있다. 바닷가 또한 칼날 같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다. 바다 속 또한 온통 바위와 돌이 깔려 있다. 그에 따른 생활문화는 한반도와 다를 수밖에 없다.

濟州島 사람들은 돌을 소재로 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物質文化를 창조하여왔다. 이를 石物이라고 하여두고자 한다. 이 글을 엮는 데는 필자의 『돌의 민속지』(2006년, 도서출판 각)를 크게 참고하였다.

2 濟州島 사람들이 돌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衣食住 전반에서 확인된다.

衣生活 도구로 다듬잇돌을 만들어서 썼으나, 다듬잇돌을 보기가 여간 어렵다. 다듬잇돌은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그러니 일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구멍이 없는 조면암으로 다듬잇돌을 만들어 쓰는 사례도 있었다. 현무암은 다공질이어서 매끈하게 다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듬잇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이다.

食生活 도구의 石物은 제법 다양하게 전승하였다. 여러 가지 食料를 비와 눈을 가리거나 병충해로부터의 변질과 부패를 막으려고 일정한 그릇에 넣어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팡' 이 쌀을 보관하는 공간이라면, 장독대는 副食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항아리를 덮는 뚜껑도 돌멩이를 다듬어 만들었다. 이를 '항뚜껑' 이라고 하였다.

돌멩이를 다듬어 火爐를 만들었다. 濟州島의 화로는 煖房用具로 쓰이기보다 祭에 올릴 炙이나 묵을 구울 때 식생활 용구로 쓰이는 수가 많았다. 숯불을 피우고 쇠를 가로로 올려놓고 적을 걸쳐 익혔다.

맷돌에 해당하는 'ㄱ레' 는 가장 대표적인 식생활 도구이었다. 풀가루를 비롯한 두부 감이나 떡 감으로 쓰일 콩, 녹두, 쌀가루를 마련하는 'ㄱ레' 도 있었다. 이를 '풀ㄱ레' 라고 하였다. 구조는 'ㄱ레' 와 다를 바 없으나 밑짝이 높았다. 물 우린 곡물이 갈리면서 떨어지는 대로 그릇에 받아

야 하기 때문이었다. 비록 돌로 만든 것이기는 해도 연자매와 절구통은 나중에 유입된 것들이다.

된장, 간장, 술, 기름 등 음식물을 製造하는 도구로 돌멩이로 만들었다. 李元鎭은『耽羅志』에서, 제주도 사람들은 "소주를 다용한다(多用燒酒)"라고 하였다. 소주는 蒸溜酒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술을 '고소리술'이라고 하였다. '고소리술'은 '고소리'에서 만든 술이라는 말이다. '고소리'는 두 가지가 있다. 돌멩이로 만든 것을 '소줏돌', 그리고 오지그릇으로 만든 것을 '고소리'라고 하였다. '소줏돌'은 돌로 만든 '고소리'라는 말이다. 오지그릇처럼 만든 '고소리'보다 그 역사가 오랜 것이었음은 물론이었다. 또 기름의 재료를 볶고 압축시켜 기름을 뽑아내는 틀이 있었다. 이를 기름틀이라고 하였다. 기름틀은 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위쪽에는 '상ᄆᆞ루', 아래쪽에는 기름틀의 몸통이나 다름없는 '봉애기'를 고정시켰다. 더러 돌멩이를 다듬어 만든 봉애기도 전승하였다.



ᄀᆞ레

제주도의 石物은 住生活에서도 제법 이용되었다. 마을길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올레'라고 하였다. 그 곳에 문이 있거나, 구멍이 난 돌을 세워 두었다. 앞의 것을 '올렛문', 뒤의 것을 '주먹돌' 또는 '정주먹'이라고 하였다. '주먹돌'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구멍을 뚫어 만든 돌이라는 말이었다. 집안 식구들이 바깥일이 있어 나갈 때는 나뭇가지를 걸어놓고, 들어올 때 내려놓았다. 그 나뭇가지를 '정낭'이라고 하였다. 집안에 사람이 있고 없음을 '정낭'의 모양으로 意思를 傳達하였다.



소줏돌

인간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불에서 힌트를 얻어 마찰과 충격을 이용하여 불을 일으키는 도구를 만들고 불을 얻어내었다. 그것으로 난방, 취사, 조명에 이용하였다. 원시에는 불의 세 가지 기능이 미분화 상태이었다. 차차 그 기능은 분화,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지금도 제주도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전통 초가에 남아 있는 '봉덕'은, 난방과 조명의 미분화 상태의 유물이었다. 전등이 나오기 전에는 소나무의 뿌리, 油脂類 등을 태워 불을 밝혔다. 이때의 照明具도 돌로 만들었다. 이를 '등경돌'이라고 하였다. 소나무의 松津이 많이 엉긴 소나무 조각인 관솔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솔칵'이라고 하였다. '등경돌'은 '솔칵'을 올려놓고 불을 밝혔던 돌기둥이었다. '솔칵'이 태워지는 대로 덧놓아가며 불을 이어 붙이던 원초적인 照明具이었던 셈이다.



주먹돌



등경돌



곰돌



덩그렁

3 생산이나 생업활동에도 石物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소가 두세 살 되면 밭갈이를 위한 길들이기가 시작되었다. 때를 놓쳐 뒤늦게 길들이려면 소는 머리가 세져 밭갈이 때 제멋대로 하려는 버릇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어렸을 때 버릇을 단단히 들여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길들이기는 밭갈이 때처럼 소의 등에 멍에를 씌우고 그 멍에에 묶은 줄을 소 뒤로 늘어뜨렸다. 이 줄은 바로 쟁기와 연결되는 줄이었다. 그 줄에 쟁기 대신 커다란 돌덩이를 묶어 매었다. 이 돌덩이를 '곰돌' 또는 '코돌' 이라고 하였다. 소가 두 살이 되는 해에는 가을걷이가 끝난 밭으로 가서 쟁기 대신 '곰돌' 을 매달고 며칠 동안 길들였다. 다시 소가 세 살 되는 해 봄에 보통 '가슬왓' 으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며칠 동안 길들였다. '가슬왓' 이란 추수가 끝난 뒤 땅 기운을 북돋우기 위하여 한두 해 경작하지 않고 놀려 두고 있는 밭이었다. 이와 같이 두 해 동안 '곰돌' 을 이용한 길들이기가 끝나면 밭이나 해변 모래밭으로 가서 쟁기를 소에다 매고 밭갈이를 시도하여 보았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밭갈이를 위한 소 길들이기가 끝나는 것이었다. 밭갈이를 위한 소 길들이기는 제주도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게 행해져 왔던 것이지만, 바로 이 때 사용되는 '곰돌' 의 무게는 마을을 단위로 한 문화 집단이 처한 토양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컸다. 자갈 함량이 높은 농경 집단에서는 밭갈이가 힘들게 마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곰돌' 로 소의 저항력을 그만큼 더 키워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李元鎭은 『耽羅志』에서, 濟州島의 "흙은 가볍다. 밭을 갈고 나서 마소의 발로 땅거죽을 밟는다(土性浮燥 墾田者 必驅牛馬以踏之)" 라고 하였다. 제주도의 토양은 火山土이다. 여름 농사인 조나 밭벼의 씨앗을 뿌린 밭을 탄탄하게 다져놓아야 保水力이 유지되어 發芽도 잘 되고 힘차게 자랐다. 제주도는 조나 밭벼 씨앗을 뿌리고 땅거죽을 고르며 씨앗을 묻었다. 마소를 이용하여 밟아 주거나, 돌로 만든 '돌테' 와 나무로 만든 '낭테' 를 마소에 매어 끌며 땅거죽을 다졌다. 이를 '밧볼림' 이라고 하였다. '돌테' 는 지금 테니스장에 쓰는 롤러와 같은 것이었다.

배나 그물을 고정시키는 닻[碇]도 돌멩이로 만들었다. 그물을 고정시키는 닻을 두고 '닷가지' , 그리고 배를 고정시키는 닻을 두고 '닷돌' 이라고 하였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낚시어구는 줄낚시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를 보통 '갈치술' 이라고 하였다. 갈치 줄[索]이라는 말이었다. 납이 흔해지기 전에는 '갈치술' 의 봉돌도 돌로 만들었다.

제주도의 手工品은 짚, 대나무, 나무 등을 素材로 만들었다. 그것을 만들기에 앞서 그 재료를 다듬거나 손질의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 '덩드렁' 이라는 커다란 돌멩이가 있었다. 지난날 '덩드렁' 은 집집마다 하나씩 갖추고 있었다. 또 '덩드렁' 은 황소의 불알을 거세할 때 쓰이는 수도 더러 있었다. 기운 세고 사나운 황소를 유순하게 만들기 위하여 거세하는 일이었다. 힘이 넘쳐서 사나운 황소를 두고 '부사리', 그리고 불치기 하는 일을 '중성귀' 라고 하였다. '중성귀' 의 어원은 어디에서 말미암았는지 뚜렷치 않으나 '부사리' 는 '불이 살아 있는 소' 의 뜻인 '불[睾丸] + 살[生] + 이' 로 분석이 가능하여, '거세되지 않아 성질이 사나운 소'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살에서부터 여덟 살까지의 황소를 두고 '부사리' 라고 하였다.[1] 그 동안에도 성질이 온순하여 말 잘 듣는 황소가 있는가 하면, 성질이 사나울 뿐만 아니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말을 잘 안 듣는 쪽으로만 기운을 쏟으려는 것들도 없지 않았다. 일상의 행동이나 모양으로 구분하는데, 못된 짓만 일삼는 놈은 앞모습은 실 차게 보이나, 뒷모습은 성가신 모양을 하고 있기 십상이었다. 못된 '부사리' 는 사나운 기운을 꺾고 온순한 기운만 남아 있게 할 소용으로 거세하였다. 이를 '중성귀' 또는 '중성기' 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가을에 '중성귀' 를 하였다. 다리 묶기를 보통 '절박' 이라 하였다. '절박' 은 結縛이라는 말이었다. 소를 넘어뜨려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할 양으로 왼쪽 앞 뒷다리와 오른쪽 앞 뒷다리에 나무막대를 하나씩 따로 대어 묶었다. 생식기의 기운을 차단시키려고 말총으로 꼬아 만든 줄로 불알주머니의 길목인 '불목' 을 묶어 버리면, 서서히 부어올랐다. 그 목에 나무막대를 양쪽으로 대어 다시 단단히 묶었다. '불' 의 목을 묶는 나무' 라 '목낭' 이라고 하였다. 주머니[陰囊] 안에 든 불알에 힘을 가하여 깨어 버린 후 그 안에서 서서히 녹아 버리게 하는 일을 두고 '불 깬다' 고 하였다. '덩드렁' 이라는 받침돌 위에 불알을 올려놓고, '덩드렁마께' 라는 방망이로 1시간 동안 불알을 내려치며 차근차근 으깨어 버렸다. '덩드렁' 과 '덩드렁마께' 는 원래 밭벼나 논벼의 짚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받침돌이요 방망이었다. 그러니 '덩드렁' 이라는 받침돌 위에 짚을 얹어 놓고 '덩드렁마께' 라는 방망이로 부숴 가듯, 쇠불알을 그 위에 얹어 놓고 완전히 깨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런 후에 누워 있는 소를 일으켜 세워 앉혀 놓고, 다시 어렵게 일으켜 세우나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알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들까 염려하여 '불목' 에 단단하게 묶어뒀던 '총줄' 을 다시 느슨하게 풀어 묶었다. 거세를 끝낸 황소를 '쇠막(외양간)' 에 몰아넣고, 한 보름 동안 빛과 소리를 철저히 차단하려고 애썼다. '멍석' 이나 지푸라기 따위로 입구와 '창곰' 을 막아 빛을 가리고, 집안이나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까 봐 걱정하였다. 가장 큰 고민은 집 밖에서 들려올지도 모를 굿 소리인데, 이렇게 큰소리가 울리면 소는 흥분하게 되어 불알에서 고름이 생기게 되었고, 불알주머니는 오므라들다가 축 늘어져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돌의 쓰임새는 무한하였다. 향로, 저울추 등을 비롯한 각종 도구나 부속품도 돌로 만들어 썼다.

칠성신을 모시는 돌집을 두고 '칠성돌' 이라고 하였다. 칠성신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절간에 불공을 드려 태어난 귀한 집안의 딸이 중의 자식을

1)강영봉(1993),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어휘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5쪽.


칠성돌


상돌


돌테

임신하여 石函에 담겨 쫓겨나고 제주도에 떠올랐다. 이 딸은 뱀의 몸으로 變身하여 딸 일곱을 낳았다. 그 딸들도 모두 뱀이 되었다. 뱀의 신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곱째 막내딸은 집 뒤의 주저리 밑 기왓장 아래로 들어가 부군칠성이 되었고, 어머니는 '고팡'의 쌀독으로 들어가 곡물을 지키는 신이 되었다는 것이다.[2] 부군칠성이 머무는 곳을 '밧칠성', 그리고 곡물을 지키는 신神이 머무는 '고팡'을 '안칠성'이라고 하였다. 어떤 마을은 '밧칠성'을 '눌' 대신 돌집에 모시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칠성돌'이라고 하였다.

조상 제사 때 향불을 올리는 香爐는 제주도답게 돌을 다듬어 만들었다. 제주도에서는 香爐 두고 '상돌'이라고 하였다. 향의 돌이라는 말이다. 향로는 너나없이 돌멩이를 다듬어 만들었다는 말이다.

어른들은 마을 안에 둔 '들음돌'을 가지고 힘을 겨루었다. 별다른 장난감이 없던 어린이들도 돌멩이를 가지고 공깃돌, 고누 등을 하며 놀았다. 돌은 삶의 환경을 척박하게 한 주요인이었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은 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내었다. 뿐만 아니라 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슬기롭게 살았다.

4

제주도는 예로부터 다듬잇돌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제주도 火山岩의 石質과 무관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장독대는 부엌 앞에, 그리고 제주도의 그것은 외부와 노출되지 않은 '안거리' 뒤쪽 외딴 공간에 있었다.

제주도의 돌화로는 한반도에서와 같이 煖房具로 쓰였다기보다 祭床에 올릴 적이나 묵을 굽은 취사 용구로 쓰이는 수가 많았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調理와 調製의 용구는 '남방아'와 'ㄱ레'가 대표적이었다. 제주도는 한반도처럼 디딜방아가 전승하지 않았다. 시대가 흐르면서 연자매와 절구통이 유입되었다.

제주도는 소주를 고아 내리는 '고소리'라는 소줏고리와 함께 돌멩이로 만든 '소줄돌'이 전승한다. 여러 갈래로 생각하여 볼 과제이다.

제주도의 대문이나 다름없는 '정주먹' 또는 '주먹돌'은 제주도의 방목문화가 낳은 제주도적인 대문이다.

煖房具인 '봉덕' 또는 '부섭', 그리고 照明具인 '등경돌' 또는 '등잔돌'은 한반도에는 없고 제주도에만 있는 문화유산이다. 그 배경의 究明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씨앗을 뿌린 밭의 거죽을 탄탄하게 밟아주기는 마소의 발과 '돌테'와 '낭테'로 밟아주기가 있다. 제주도 안에서는 마

2) 현용준(2004)『현용준민속사진집 靈』, 각, 899쪽.

소의 발, 또는 '돌테'와 '낭테', 그리고 마소의 발과 '낭테'와 '돌테'를 혼용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 분포도를 명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배의 닻을 돌멩이로 만드는 수가 많았다. 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닻의 무게와 쓰임이 여러 가지였을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요망된다.

交易을 하는 데는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이 필수적이다. 제주도의 옛 저울추는 대부분 돌멩이로 만들었다. 그 무게를 어떻게 맞추고 저울추로 삼았는지는 과학적인 조사 ·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耽羅志』(李元鎭)

『南遷錄』(金聲九)

『知瀛錄』(李益泰)

『南宦博物』(李衡祥)

『耽羅志草本』(李源祚)

『耽羅錄』(李源祚)

『耽羅誌』(南萬里)

『濟州郡邑誌』

玄容駿(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현용준(2004) 『현용준민속사진집 靈』, 각.

강영봉(1993),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 어휘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북제주군(2002), 『北濟州郡文化遺蹟分布地圖』.

김영돈(1968), 『濟州島의 石像 · 石具』, 문화재관리국.

고광민(2002), 『漁具』, 제주대학교박물관.

고광민(2004), 『濟州島浦口硏究』, 도서출판 각.

고광민(2006), 『돌의 민속지』, 도사출판 각.

Jeju, The Stone World

Ko, Kwang-Min(Researcher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1 Jeju Island is a volcanic island. *'Orums'*, secondary volcanic mountains, and fields surrounding *Mt.Halla*, cover the island and stretch down to the sea. The whole landscape of the island has been shaped by lava which flowed from *'Backrokdam*(crater)' down to the sea after the eruption. Because of that, rocks and stones are made of basalt and covered by tress. These basaltic rocks have had a huge influence upon Jeju people' s life.

Stones are spread all over Jeju island. Stones are laying everywhere; on the fields, across roads, throughout villages and even the sea sides are surrounded by sharp rocks. Rocks and stones are also carpeting the seafloor. Consequently, Jeju culture differs from the mainland culture.

Jeju culture takes its root in the stone which has enabled the people to shape the various tools necessary for their daily life.

Stone items and structures as a whole are referred to as *'sukmul'*. This article was largely referenced from 『Ethnography of Stone』(Publishing House Kak, 2006).

2 Many examples show that the islanders used stones widely for mak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People used to make *'Dadoumitdol'*, stone blocks used for pounding cloth, a tool that has almost disappeared nowadays. The surface of this stone block had to be smooth. Therefore *'Da doum it dol'*, made of trachyte, came mainly from other areas because of the impossibility of making porous basalt into smooth rock.

A large variety of cooking tools were made of stone. Ingredients had to be kept in specific containers to prevent spoilage and damage by rain, snow or insects. *'gopang'* was the space where the rice was kept and 'jangdokdae' was the place to keep reserve food. Many *'hangari'*(pots) were placed out in the yard or *'jangdokdae'* and the lids covering the pots were made of trimmed stone called *'hangtoukkyung' (tou kkung: lid).*

Brazier was also made of trimmed stone. Braziers were used more as a cooking tool for grilling skewered meat or jelly than for heating. Iron bars were laid over the burning charcoals and the skewered meat was cook on them.

'gore', the local *'matdole'*(millstone) was the most representative cooking tool. *'gore'* were used to grind, mung beans and rice for making tofu, rice cake and glue.

There was also another type of millstone named *'pulgore'* similar to the *'gore'* except for the lower stone which was higher in order to get grain powder from soaked grains, directly into the container. Mortar and millstone operated by

animals were also made of stone but came to Jeju later.

Cooking tools used in the preparation of bean paste, soy sauce, alcohol, oil. etc were made of stone. These Jeju people consumed *Soju* a lot. *'Soju'* is a distilled alcohol and it is called *'gosorisul'* in Jeju. *'gosoriul'* means alcohol made from *'gosori'*, a type of jug. There were two types of *'gosori'*. *'sojutdol'* made of stone and *'gosori'* made of clay. *'sojutdol'* is naturally older than *'gosori'*.

Another tool permitted the roasting and compressing ingredients for making oil. This tool consisted of two standing poles joined by *'sangmoru'* on their upper part, and rested on the *'bongaeigi'* which was the body of this kind of compressor. Sometimes *'bongaeigi'* made of stone were found.

Stones were used for housing in Jeju. *'olle'* is the path connecting houses to the outside. At the end of the *'olle'*, stood either a gate called *'ollemoon'* or two stones called *'joomerkdole'* or *'jeongngjumok'*. *'jjoomerkdole'*, meaning literally 'the stone with a fist-sized hole, actually had three holes through which long logs could be inserted. When family members went out, they hung logs in between the stones and when they came back, the logs were put down. The logs were called *'jeongnang'* and were useful to indicate if the family was in or out of the house.

After observing natural fires, ancient people started to try to reproduce it by rubbing and scratching stones. They used it for heating, cooking and lighting. Primitive society first used the same fire for those 3 functions but gradually the functions were differentiated and developed.

'bongdeok' is one relic that shows the undifferentiated functions of heating and lighting. It's uncommon to see *'bongdeok'* in modern society and it can only be seen in traditional houses like the ones in the Jeju folk village.

Before electric lighting, burning pine tree roots or oil was the source of lighting. The light was framed by stone and it was called *'Deung gyeongdol'*.

Resinous knots of pine tree were called *'solkak'* in Jeju. *'deunggyeong dol'* was the stone frame where *'solkak'* was burned to provide light.

Burning *'solkak'* gave a primitive type of lighting.



Gore



Sojutdol



Jumeokdol



Deunggyeongdol



Gomdol



Deongdeureong

3 Stone was used actively for handwork production.

Usually cattle started to be tamed by the age of 2~3 years and not later because once it grew older the cattle became wayward and difficult to keep for farming. So taming would start when they were still young. They were tamed by practice plowing on the field. A yoke was put on the cattle and tied with a rope. The rope would hang behind the cattle and be connected to the plow. A stone would be hung instead of a plow during the taming period. That stone was called *'gomdol'* or *'kodol'*.

After the harvest and when an ox became 2 years old, it would be tamed with *'gomdol'* for several days.

The following year around spring, the ox became 3 years old and It would be time for it to be tamed again at *'gaseulwat'*. *'gaseulwat'* was land in fallow for a few years after a harvest. The taming period ended after 2 years of training with *'gomdol'*. The way of taming the ox was the same in everywhere in Jeju but the weight of *'gomdol'* differed depending on the physical composition of the soil in each village.

It was difficult to plow in areas where the soil contained a lot of gravel. Therefore, it needed heavier *'gomdol'* for the ox to increase the resistance.

Jeju soil is light, cattle and horses tread the surface of the land after plowing" Lee Won-jin mentioned in his book『Tam la ji』.

The soil on Jeju is of tress type. In order to plant millet or hill rice in summer, the ground needed to be hardened so that it could recover its strength and the seeds would sprout well.

In Jeju, millet or hill rice planting needed to be done after treading the ground. A stone, *'dolte'*, or a log, *'nangtae'*, carried by horses or cattle trod the ground and this procedure was called *'batbolrim'*. The *'dolte'* is similar to the roller commonly used nowadays on tennis courts.

Anchors to fix boats and nets were also made of stone. The anchor used to fix a net was called *'dat'* (anchor) *'gaji'* and the anchor fixing boats was called *'datdol'*.

The most common way of fishing was string fishing and was usually called *'galchisul'* or more precisely *'galchijul'*. The sinker of the *'galchisul'* was made of stone before lead became the common material.

In Jeju, handcrafts were made of straw, bamboo, trees, etc. which needed to be trimmed or polished. During the trimming and the polishing process, a large stone called 'dung de lung' was used. Each

family had a *'deongdeureong'* in the past and sometimes it was used for the castration of the bulls.

The castration of wild bulls made them submissive. Wild and aggressive bulls were called *'busari'* and the castration was called *'jungeonggue'*.

The origin of the word *'jungseonggue'* is uncertain. It' s possible to speculate over the meaning of 'busari'. However, Bu(testicles) + sa (active) +ri, as bull with active testicles.

It also means uncastrated bulls get wilder. A 5 to 8 year old bull was called *'busari'*.[1] Among the *'busari'*, some bulls would be naturally submissive and easy to handle but there were also wild bulls which could not be controlled easily. The character of a bull would have an influence on its shape. Rogue bulls' front shape would look solid whereas the back part would look burdened. Rogue *'bu sa ri'* were castrated to get rid of their wildness and give them a submissive character.

This castration was called *'jungseonggue'* or *'jungseongki'*

Castration went on through several procedures in the autumn. The binding of the legs was called *'jeolbak'* or *'kyeolbak'* (binding) in standard Korean. Sticks were tied to each hind leg with a horse tail string to make the bull fall. After the bull had been knocked down, the *'bulmok'*, which is the head of balls pocket, would be tied in order to kill the generative vigor.

This would cause the testicles to swell. Then they would be tied again. The wooden sticks called *'bulnang'* (wood) tying the entrance. The action of breaking the testicles in the scrotum and letting them inside was called *'bullkaki'* (breaking balls). Testicles were put on *'deongdeureong'* and were beaten by *'deongdeureong makke'* (stick) for an hour.

'Ddeongdeureong' and *'deongdeureong makke'* were originally made for smoothing rice (or hill rice) straws. The bull' s balls would be banged with *'Deung de lung makke'* on the *'Deongdeureong'* the same way rice straw was smashed. After this, the bull would be so weak it would stagger back to the barn. After the bull went through all this, it stayed in a *'shemak'* (cattle pen) to be isolated from light and sound for 15 days. Noise was the major source of trouble. A loud noise could disturb the bull and thus infect the wounded testicles. Once the procedure was completed the testicles shrunk and just dangled.

The way to use stones are almost unlimited. Many tools and paraphernalia such as were also made of stone. incense burner, balance weights. etc.

A stone house where people worshiped The Plow god*(chilseongshin)* was called *'chilseongdol'*.

Here is a story about *'chilseongdol'*.

There was once a daughter of a noble family who got pregnant with a monk. She was thrown out of the family and put in a stone chest. The stone chest sunk in the water but later on came up over the sea near Jeju Island. She managed to survive and

---

1) Kang Young-bong(1993), 「A Study on Jeju Dialects on Animals, -Based on Terminology」 p. 15, Dissertation for Phd. Kyeongki University,



Chilseogdol



Sangdol



Dolte

transformed herself into a snake. Finally she gave birth to 7 daughters and the daughters also transformed into snakes. Not merely snakes. They became the goddesses of snakes and scattered all over Jeju. The 7th daughter went under a roof and became the Outdoor Plow Goddess. The mother of these 7 daughters went into a rice jar which was placed in *'gopang'* (food storage room) and became a goddess who controlled the grains.[2] The place where the Outdoor Plow Goddess (bugeun chilseong) stayed called *'batchilseong'* and the *'gopang'* called *'annchilseong'*. Historically, some Jeju villages used to worship *'batchilseong'*.

hyang no' is an incense burner used during the ancestor worship' s ceremony and was made of stones in Jeju like many other tools. But *'hyangno'* was called *'sangdol'* in Jeju. Literally meaning 'hyang (scene) dole (stone)'. It shows that all the incense burners were made of stone.

In villages, men used to match their strength by lifting up a stone called *'deuleumdol'* and the children also played *'gongki'* and *'gonu'*, some kind of stone toys.

The stone could have been a negative factor for the island and the islanders, leaving the land barren, hadn' t it been for the wisdom the inhabitants showed in the way they adapted to their environment.

4 It was hard to get proper stone to make *'dadeumitdol'* in the past and that was because of the stone in Jeju.

On Korea' s mainland, *'jangdokdae'* was located in front of the kitchen but In Jeju, it was located behind the kitchen to be isolated from outside.

In Jeju, stone burners were more used for grilling skewer meat or jelly to prepare for ancestor worship ceremonies, whereas in the mainland the burners were used for heating.

'gore' and *'nambangah'* were the most representative Jeju traditional items for cooking and manufacturing.

Jeju didn' t use *'didilbangah'* while it was used on the mainland. But *'yeonjamae'* and *'geulgutong'* were used on Jeju.

'gosori' was used for brewing soju. One part in *'gosori'* called *'sojut dol'* was made of stone. The cultural background of *'gosori'* gives us some questions that can bring many different answers.

The Jeju gates, *'jeongjumeok'* and *'jumeokdol'*, play an important role as gates and were influenced

2) Hyeon Yong-jun(2004) 『Collection of Folklore Materials, Spirits』, p. 899

by the horse farming culture in Jeju.

Heating tools as *'bongdeok'* and *'buseob'*, lighting tool as *'deunggyeong dol'* and *'deungjandol'* are only to be found on Jeju, and there is more to be studied about the cultural background of Jeju and its difference from the mainland.

On Jeju, for farming, the soil was intentionally compressed by farmers using horses or cattle, or by hanging *'dolte'* and *'nangtae'* after sowing seeds.

A distribution chart needs to be made for those areas.

On Jeju many anchors were made of stone. Probably the anchors were made for many different uses and were of various weights. Further study and research needs to be done on this subject.

To have a balance as measuring tool was essential for trading businesses and most of the balance weight were made of stone. Scientific study needs to continue to find out how mere stones could weigh and be used as a measuring stones. as well as other things.

References

『History of Tamra』 (Yi Won-jin)

『Record of Southern Villages』 (Kim Seong-gu)

『Record of Jiyoung』 (Yi Ik-tae)

『Objects of Namsin』 (Yi Hyeong-jo)

『Tamra History』 (Yi Won-jo)

『Record of Tamra』 (Yi Won-jo)

『History of Tamra』 (Nam Man-ri)

『History of Jeju-eup』

Hyeon Yong-jun (1980), 『Dictionary of Jeju Folklore and Shamanism』, Published by Singu Publishing Company.

Hyeon Yong-jun(2004) 『Hyeon Yong-jun Folklore Photo Album』

Kang Young-bong (1993), 『A Study on Jeju Dialect concerning Animals – Based on Terminology-』 Dissertation for Phd. of Keyonggi University

Bukjeju County (2002), 『Map of Bukjeju Cultural Relics' Distribution』.

Kim Young-don (1968), 『Jeju's Stone Statues and Tools』,

National Cultural Management Institute.

Ko Kwang-min(2002), 『Fishing Tools』,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Ko Kwang-min(2004), 『A Study on Jeju's Seaports』, Book Publishing Company.

Ko Kwang-min(2006), 『Stone Folklore』, Book Publishing Company.

石像과 石物

Reference Book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Stone Statues and Stone Relics

발행일 _ 2007년 2월
발행처 _ 제주대학교박물관
편집인 _ 강동언, 박성진
원 고 _ 강동언, 고광민
사 진 _ 김병국
디자인 인쇄 _ 제제사람들 Tel.064)702-4747

제주대학교박물관
CHEJU NATIONAL UNIERSITY MUSEUM